

# 북한판 국역 「리조실록」 어떤 책인가

## 36년만에 401 권으로 완간...평이한 구어체 번역이 특징

북한에서 국역한 「朝鮮王朝實錄」을 국내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통일원은 최근 북한판 「리조실록」 반입허가 신청을 낸 남북교역(대표 김승균)측에 대해 “우리민족의 공동유산이며 남북학계 공통의 연구대상”인 이조실록이 “북한발행 원전의 개방을 위한 첫단계”로서 “상업적 판매책자로 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밝힘으로써 북한판 「리조실록」의 실질적인 수입이 가능해졌다.

북한에서 이조실록의 번역이 끝났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지난 1988년. 실록의 부분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학계는 번역본의 일부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왔다. 북한은 1954년부터 사회과학연구원 민족고전연구소(소장 홍기문)에서 이조실록의 국역에 착수, 36년만인 작년까지 모두 4백1권으로 완간했는데, 북한에서도 국가적 사업의 차원에서 심혈을 기

울여 만든 ‘대역사’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완간한 「리조실록」 401권본 20질을 서방세계에도 선보이기 위해 일본의 구월서방에 보냈는데, 이 가운데 1질이 남북교역과 구월서방간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 실록원본은 6·25때 서울서 가져가

「朝鮮王朝實錄」은 조선왕조 태조 때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년·월·일의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술한 기록이다. 1431년(세종13) 처음으로 「태종실록」 36권을 편찬한 후 태조·정종·태종 3대의 실록을 2부씩 등사하여 보관하기 시작했는데, 1603년(선조36)부터 1910년(융희4)에 걸쳐 印出됐다. 서울에는 정족산과 태백산 사고에 보관됐던 실록이 남아 있는데, 일제가 1910년 이 실록을 규장각도서와 함께 조선총독부로 옮겼다가 1930년 경성제국대학으로 옮겨

져 8·15광복 당시까지 서울대학교에 남아 지금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북한의 이조실록은 6·25때 서울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1978년에 간행된 「역사과학」 86호에서 북한사회과학원의 洪起文원장이 “50년 7월 서울을 점령했을 때 한 도서관에 소장된 실록 원본을 평양으로 옮겨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6·25때 부산으로 소개시켰다가 보관창고의 화재로 불타 없어졌다고 추정해왔던 적상산본 실록원본이 북한의 국가귀중문서서고에 보관돼 있으며, 현재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일제 때 간행된 영인본으로 ‘李王家圖書之章’이란 붉은 인장이 찍혀 있어 서울 장서각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원본과 古書를 6·25때 가져간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북한의 「리조실록」 번역작업은 벼초 홍명희의 아들인 국어학자 홍기문씨를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학자들에 의해 이뤄졌다. 이조실록은 중국고사와 史記 등의 예를 인용하여 서술한 부분이 많아, 중국역사와 외국문물에 통달하고 한문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유려한 우리말 문장력도 갖춘 사람이어야 번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국역팀은 대부분 원로 한학자로 구성됐는데, 6·25때 월북하거나 잔류한 학자들도 상당수 있다고 전한다. 북한에서는 일찍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국역작업에 착수했는데, 이는 학자들을 국역작업에만 몰두하게 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불만을 용해시키는 부수적인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 한자배격, 쉬운 우리말로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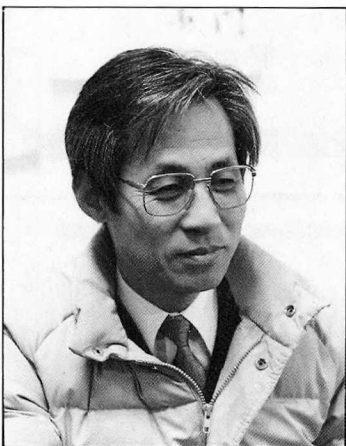
이번에 북한의 「리조실록」을 수입하는 김승균씨에 의하면 북한의 번역본은 4·6판 크기의 감색양장본으로 꾸며져 있으며, 권당 800~900쪽 분량에 원문을 300쪽 정도 할애하고 있어, 전체 번역본 분량만도 약 200만장 가까이 이른다고 한다. 철저한 고증을 거친 완벽한 국역임을 자랑하는 북한의 「리조실록」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이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경륜이 뛰어나고 레법을 밝혔으며 사직을 보전하고 왕업을 이었으며 리치를 통달하고 의리를 베풀었으며 지조가 바르고 선대의 뜻을 이룩한 정조대왕실록 제38권” 등으로 각권은 시작된다. “몇해를 살아도 아들이 없어서 최씨와 함께 락산 관음굴에 가서 빌었다. 어느날 밤 꿈에 장삼을 입은 중 하나가 와서 이르기를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선래라고 지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얼마후 태기가 있더니 의주에 와서 과연 아들을 낳았다. 선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가 바로 도조이다.”(태조실록 제1권) 같이 선조의 내력을 풀이한 것이나, “내가 덕이 없는 사람으로서 왕위를 이어받아 밤낮 조심하고 걱정하면서 나라를 편안하게 할 것을 생각하기에 조금도 겨를이 없다. 그렇지만 미처 보고 듣지 못하여 실정을 모르는 폐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된다. 그래서 옛법을 참고하여 신문고를 설치하는 것이다. 정사의 잘잘못이나 백성들의 기쁨과 걱정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의정부를 통하여 제기하다가 제기되지 않을 때에는 곧 와서 신문고를 칠 것이다. 접수할 만하면 즉시 받아들일

### 얼굴

## 남북출판교류 길트기의 첫걸음

### 북한책 반입승인 얻어낸 김승균씨



북한책이 국내에 선보일 날도 멀지 않았다. 최근 정부로부터 「이조실록」을 비롯한 북한책 반입허가를 받아낸 김승균씨(남북교역 대표)가 남북출판물교류 길트기의 그 첫걸음을 옮기게 됐다. 일월서각 편집인으로 있는 김승균씨는 지난 89년 1월18일 일본의 九月書房(대

표 김원택)과 ‘간행물의 상호공급에 관한 1차 약정서’를 맺었는데, 약 2년만인 올 1월29일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서적 반입 및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은 것. 이로써 북한에서 국역된 「팔만대장경해제」와 「선역팔만대장경」 「이조실록」 등 3종 606권의 북한책이 국내에 첫선을 보이게 됐다.

“정부의 허가 내에서 북한책을 가져와 팔고 우리 물건도 북한에 판다면, 출판물교류를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조실록」은 우리나라 간행물의 대들보로서 역사의 1차자료 발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책이고 「팔만대장경」 역시 우리 민족 공동유산이므로 정치성이 개입할 여지도 적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제하 언론관계자료를 구하러 일본의 九月書房에 들렀던 계기로 일주일만에 첫계약을 맺었지만 정부의 인가가 나기까지 과정은 그리 순조롭지 않았던 듯하다. 마침 문헌문화사의

방북문제도 북한과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된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비밀자료인가서점인 종로서적을 대행기관으로 한 2차공급계약확인서를 맺어야 했고, 북한간행물이 외국도서로 취급돼 외국도서수입업체인 ‘남북교역’을 설립, 재신청한 후에야 비로소 승인을 얻게 된다.

원래 김승균씨는 4·19때부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재야인사. 金芝河시인의 「五賊詩」가 실린 「사상계」 편집장을 거쳤고 ‘민주연론 운동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기도 하면서 7번의 감옥생활과 13년간의 도피생활을 했던 정부 ‘요시찰 인물’이었다. 그는 이러한 경력이 오히려 굵직한 출판사·서점을 제치고 남북출판물교류에 한발 앞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됐을 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정치적 자아로부터 문화적 자아로의 의식 전환”을 계기로 이제 “문화교류의 첨병역할을 해보겠다”는 김승균씨는 앞으로 일반단행본은 물론 신문·잡지·음반·비디오테이프 등에 이르기까지 교역내용을 확대할 계획도 세워놓았다. 이번에 반입될 북한책은 직교역형식을 취할 예정이며, 당분간 일반판매보다는 언론·교육·연구기관의 자료로서 활용될 가치가 높다. 그는 이달 25일 판매가격과 시기, 북한쪽과의 직접교류 가능성 등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일본에 갈 예정이다.

북한은 1954년부터 사회과학연구원

민족고전연구소(소장 홍기문)에서

이조실록의 국역에 착수,

36년만에 모두 401권으로 완간했는데,

북한에서도 국가적 사업의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인 '대역사'로

평가하고 있다. 전체 번역본 분량만도

약 200만장 가까이에 이르는

북한판 「리조실록」은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풀이한 것이 특징이다.

것이고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대할 것이다.”(태종실록 제3권) 등의 내용에  
서도 그 특징이 드러난다.

한편 본문에서 이해가 불분명한 용어는 따  
로이 「어려운 말뜻풀이」 사전을 마련, 상세한  
해설과 함께 출전이 일일이 밝혀놓았다. 이를  
테면 管牌에 대해 “《추관지》 4편 장금부의 야  
금이란 항목에 의하면 《패》가 작은 부대나 집  
단이라는 뜻이고 《관》이 관리한다는 뜻으로  
작은 부대나 집단의 관리자란 말이다.”라고 쉽  
게 그 뜻을 이해하도록 했다.

#### 주석 붙이지 않는 등 우리 국역서와 차이

한자를 일체 배제한 우리말 풀이의 노력이  
한눈에 드러나는 북한판 「리조실록」은 아직 그  
실체를 비교분석한 상태가 아니라 번역의 정  
도를 가늠하기엔 이르다. 민족문화추진회 편찬  
실장 신승운씨에 의하면 북한의 「리조실록」이  
“줄기차게 한글 전용만을 고집해온 데서 한자  
나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해에 평이한 구  
어로 번역” 했다는 특징을 지나 “고전의 번역  
에서 의례 갖춰야 할 주석을 붙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간 대체적으로 난해하다는 평가를  
들어온 우리 국역서와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은 북한의 「리조  
실록」은 사실상 연구자료로서 부적합하며 만  
약 국역의 목적이 연구자료에 있다면 한자를  
노출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또한  
국역서 활용을 돕기 위한 색인, 용어사전, 주제  
별 분류집 등 자료집 편찬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는 우리의 국역작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는 색인집만을  
따로 편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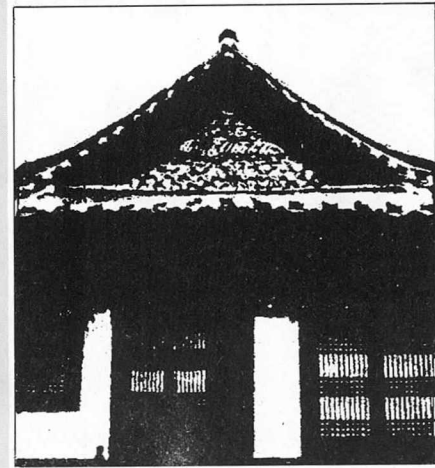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世宗실록」을  
처음으로 조선왕조실록의 국역이 시작된 이래  
민족문화추진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각  
각 실록의 국역담당기관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작년까지 모두 308책이 번역됐는데 「광  
해군일기」와 「정종실록」 「순조실록」을 제외  
한 나머지가 모두 완료됐거나 진행중이다. ‘고  
전국역활성화방안’(1985)에 의해 연간 30책  
을 국역하도록 규정하여 1995년까지는 완간할  
계획. 하지만 국역자의 전문성, 번역인력, 재정  
적 문제 등의 과제 속에서 어렵게 진행되고 있  
는 실정이기도 하다.

#### 남북공동 학술작업의 발판삼기를

사실 실록의 번역사업은 조선시대사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리라는 점에서 국역의 상  
징적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자들이  
한글세대로 대체돼가는 시점에 있어 더욱 국  
역은 서둘러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  
다. 따라서 북한의 「리조실록」 번역본은 국내  
학계의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는 물론 앞으로의  
국역사업에도 커다란 자극제로 작용하리란 기  
대가 크다. 또한 북한의 「리조실록」수입을 시  
작으로 남북 공동의 학술작업이 필요한 부분  
에서는 상호 연구교류를 통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기대는 더욱 크다.

—김지원 기자

## 집을 지어드립니다



1987년부터

### 책

27명의 전문가들이

대패질도 하고 톱질, 망치질에 곡괭이, 삽, 도끼 등을 동원하여

### 책

그 정신의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에서 설계도면까지의 잘 나가다다,  
지붕의 모양새 때문에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일이 틀어져서 서로 얼굴도  
마주하지 않을 것처럼 고집들을 부리기도 하지만,  
상량식을 하고 고사상을 앞에 놓고는  
낄낄거리며 어깨동무도 합니다.

### 책

우리들 각자의 삶의 목표가 책 그 자체는 아니겠지만  
책을 깔고 다듬고 새기며 칠하고 묶어내는 일을 통해  
바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큰 뜻 아래 우리는  
이 곳 바른글방에 모여 있습니다.

출·판·전·문·집·단



종로3가 파카다리 극장 옆 초동빌딩 2층  
전화 764-4241(대) / 764-4240 / 766-1947  
팩시 744-9209

**출판전문집단** 바른글방 사람들은 책에 관한 모든 일들을  
거뜰히, 믿음직스럽게 해낼 수 있습니다.  
본문의 편집 및 교정은 물론, 책의 기획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표지·본문·출판광고 디자인과 전산·수동 입·출력, 그리고  
제작전반에 이르기까지 숙련된 전문가의 솜씨로 대행해 드립니다.

**바른글방**에서는 이를 위해, 미려한 서체의 최신품종인  
전산사식 편집·입력기 15대와 레이저 교정지  
출력기·인화 및 필름 출력기를 자체보유하고 있으며, 일반  
퍼스컴이나 워드프로세서로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위한 수동사식기와 중국어 간체자  
자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